

임·형·주

감성 깨우는 '힐링 팝페라' 광주 콘서트

지난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된 노래가 있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부른 '천개의 바람 되어'다. 지난 2009년 발표한 'My Hero' 앨범에 수록됐던 곡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발매했다. 노래는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임씨는 수익금 57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아름다운 미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는 12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 콘서트 주제는 'L.O.V.E'다 'LOVE(사랑)', 'OPERA(오페라)', 'VARIETY(바라이어티)', 'ETERNITY(영원)' 총 4가지 테마로 나눠 클래식과 팝,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곡들을 들려준다.

우선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오페라로 지오다노의 '페도라' 중 '금지된 사랑'과 '사곡' 등 정통 클래식을 들려준다.

다양한 뮤지컬 넘버도 만날 수 있다. '오페라의 유령'의 '사곡'과 'All I ask of you', '지킬 앤 하이드'의 'This is moment'와 'Once upon a dream', '캣츠' 중 'Mem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이다. 각각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들려주는 게 인상적이다.

또 지난해 데뷔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발매한 가요앨범 '사랑' 수록곡인 '엄마', '1994년 늦은 어느 밤'도 들려준다. 그밖에 프랭크 시나트라 의 히트곡 메들리, 팝송 'I.O.U.'를 선사하며 '천개의 바람이 되어'도 부른다.

클래식·팝·재즈·가요 장르 초월 무대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12월 31일 광주문예회관

협연은 지난 2005년 창단한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케지 G 내한 공연과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맥컬리스 방한 기념 청와대 초청 공연에 참여했으며 임형주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오랫동안 파트너로 함께 해왔다.

최근 MBC 예능 '복면가왕'에 '상남자 터프가이'로 출연, 윤심덕의 '사의 찬미'를 부르기도 했던 임형주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최근에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리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서 선정돼 다시 한번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1998년 12세의 나이로 첫 독집 앨범이자 기념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한 그를 가장 먼저 각인시킨 2003년에 발매된 'Sally Garden(샬리 가든)'이다. '팝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했던 당시 옛된 얼굴의 그가 아름다운 미성으로 부르는 '샬리 가든'은 클래식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2003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계 남성 성악가 사상 최연소 나이로 해외 독창회를 열어 화제가 됐던 그는 최근 영국 BBC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톱 5'에 올라 브라이튼, 안드레아 보첼리, 일 디보 등과 함께 올라 화제가 됐다.

티켓 가격 12만원~7만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이 꿈꾸는 '1평의 정원'은?

'광주 도시정원 오피버스 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5일 정원'이 14일 동구 5·18 민주광장 일대에 선보였다. 시민들이 한평 크기로 직접 고안한 '5일 정원'은 창의적이고 실현적인 게릴라정원(15개), 관람객들이 직접 집에서 따라해볼 수 있는 생활정원(15개)으로 나뉘어 오는 18일까지 전시된다. 행사 기간중에는 가든 레시피, 가정원교실, 가든마켓 등도 열린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시정원 축제' 18일까지 30개 전시



광주대 주얼리디자인학과 졸업 작품전

19일까지...광주대 극기관 1층 아트홀

주얼리 디자이너를 꿈꾸는 광주대 주얼리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지난 4년간 배우고 습득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19일까지 광주대 극기관 1층 아트홀에서 열리는 졸업작품전에는 23명의 졸업예정자들이 참가해 실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작품 50여점을 전시한다.

예비 보석전문가들은 골드, 실버, 비취 등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해 액세서리와 와인 홀더, 시계, 촛대 등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번 광주 전시가 마무리되면 오는 21~27일까지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송숙남 교수는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분야"라며 "이번 졸업작품전은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4년 상업디자인학과로 출발한 주얼리디자인전공은 이후 공예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을 개설하고 2007년 주얼리디자인학과로 변경됐다.

금속제품 디자인과 귀금속 세공, 주얼리 디자인, 주얼리 캐드, 보석감정 등 5개 교과과정으로 나뉘어져 최첨단 실험실습 기자재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실용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졸업 후에는 보석감정사, 주얼리 디자이너, 문화상품 디자이너, 금속공예가, 큐레이터, 주얼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보람기자 boram@



김지은·양민지 작 '페이퍼 칼'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